

면허증 반납율 0.2%뿐...적성검사장만 북적

노인교통사고 줄이자 (2)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혜택 없는데 누가 반납 하겠나" 갱신 주기 줄이고 교육 의무화 교육장 광주는 없고 전남 2곳뿐 고령운전자 매년 1만명씩 늘어

"노인들은 장거리 운전하지 말라더니, 교육장은 왜 이리 멀어?"

지난 18일 오전 9시 10분께 나주시 전남 면허시험장 2층 고령운전자 교육 대기실에는 75세를 넘은 할아버지 14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함평에서 왔다는 이모 (79)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준비해 하루 2번 밖에 없는 마을 버스를 타고 왔다. 전남은 섬 등 도서지역도 많은데 교육장이 나주와 광양에만 있어서 다들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무인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육장에

왔다. 유모(75)할아버지는 "현재 내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선 유용한 것 같긴 한데, 교육이 치매검사 와 비슷해 기본은 별로"라고 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의무교육과 면허증 반납제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도 의무교육장이 2곳에 불과해 교육인원조사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 대상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운전을 제도적으로 막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도 반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무명무실한 상태이다.

고령 운전자들은 "정부에서 고령운전자는 장거리 운전을 피하라고 해놓고는, 정작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면허증 반납제도도 반납에 따른 장점이나 혜택이 없어 반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교육기관 확대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증 갱신 전 인지 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장이 나주 전남면허시험장과 광양면허시험장 등 단 2곳 뿐이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매주 월·수·목 오전과 오후 2차례 교육을 진행하는 전남면허시험장과 매주 화·금요일에만 교육을 하는 광양면허시험장은 이미 4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차 있다. 특히 이들 2개 교육기관의 연간 최대 교육인원은 나주 4680명, 광양 2080명 등 6760명 정도다.

광주·전남지역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6년 3만8535명, 2017년 4만 5855명, 2018년 5만30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2016년 17만1804명, 2017년 18만 9971명, 2018년 20만5066명으로 해마다 1만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나마 광주시민들 사이에 광역시인에도 교육기관이 한곳도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도로교통공단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전남지부 2층에서 오는 22일부터 교육(매주 금요일)을 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1년 교육인원은 1040명에 불과하다. 또 이곳에선 교육을 받더라도 나주교육장 등과는 달리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도 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429명으로,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의 0.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면허증 반납보다는 고령 운전자 본인의 현재 상태를 자각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전남 일부 도서지역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면허시험장을 찾아가기 힘든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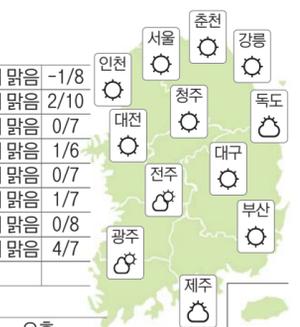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4 해질 18:19 달뜨기 19:04 달지기 07:42

물러난 동장군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

광주	흐린뒤 맑음 1/10	보성	흐린뒤 맑음 -1/8
목포	흐린뒤 맑음 2/7	순천	흐린뒤 맑음 2/10
여수	흐린뒤 맑음 2/10	영광	흐린뒤 맑음 0/7
나주	흐린뒤 맑음 -2/9	진도	흐린뒤 맑음 1/6
완도	흐린뒤 맑음 2/9	전주	흐린뒤 맑음 0/7
구례	흐린뒤 맑음 1/10	군산	흐린뒤 맑음 1/7
강진	흐린뒤 맑음 0/9	남원	흐린뒤 맑음 0/8
해남	흐린뒤 맑음 -1/7	흑산도	흐린뒤 맑음 4/7
장성	흐린뒤 맑음 0/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부 먼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나쁨
미세먼지	나쁨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7:47	02:22
20:21	15:06	
여수	03:24	09:55
	15:55	22:07

◇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	☁	☁	☀	☀	☁	☁
-2/12	1/11	0/13	1/12	1/13	1/13	2/12



2019년 광주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시 2019. 2. 19.(화) 09:30 장소 동구청 대회의실(6층)

동구 노인일자리사업 출발 광주시 동구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구시니어클럽 어르신들과 임택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각화농산물시장 민관합동 청소 등 환경 개선

광주시 북구가 각화동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주변 환경 개선 방안,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이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불법쓰레기 수거, 노상적치물 제거 등을 건의했다.

이에 북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대정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변 도로와 인도에 버려진 저온창고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치워지지 않으면 4월까지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북구는 교통·쓰레기·노상적치물·시장활성화·부지 이전 문제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북구·시장 관계자(도매법인 등)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개선 대책 수립 용역도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북구는 시장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총량 증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대 간호학과 간호사 시험 4년 연속 100% 합격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간호학과 학생들이 '제 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함으로써, '4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호남대 간호학과는 19일 "지난 1월 25일 실시된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올해 응시자 81명 전원이 합격했다"며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

게 됐다"고 밝혔다. 호남대 간호학과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 및 지역 유수 보건교육기관과의 실습협약 체결, 일대일 담임 교수제 및 방과 후 공부방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꾸준히 실시해 매년 우수 간호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28일까지 2019학년도 정시 추가 모집

동강대는 오는 28일까지 2019학년도 정시 자율(추가) 모집을 한다. 모집 학과는 보건계열의 안경광학과, 인문사회계열의 사회복지과(야간), 세무회계과, 동강대는 '2018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정비 제공을 비롯해 520여 개 기관·기업 등 산업체와 손잡고 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히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강대 취업률은 72.7%로 나타났다.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69.8%)과 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광주 60.8%, 전남 64.2%)보다 훨씬 높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1등급 획득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 포함)과 조선대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국 63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4차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을 획득했다. 이로써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부문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개원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병원 부문에 2015년·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1등급을 차지하게 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해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REA)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